

# 세계기도정보

[이라크] 이라크, 난민 수용소 폐쇄...고향 파괴된 기독교인들 곤란  
 [쿠바] 쿠바와 한국 외교 관계 수립...선교 기회 확대 기대  
 [에콰도르] '무법천지' 에콰도르 비상사태 한 달...범죄혐의 6천600여 명 구금  
 [아제르바이잔] 아제르·아르메니아 또 긴장...국경 총격전에 군인 4명 사망  
 [미국] 미국 뉴햄프셔 주의회, 낙태로 태아 살해를 헌법적 권리로 만드는 법안 철회  
 [필리핀] 필리핀 남부 산사태 사망자 70명 육박...실종자 51명  
 [중국] 중국, 신장위구르 종교 통제 강화...“공산당 이데올로기 반영”  
 [니카라과] 니카라과에서 1백만 전도 집회 연 美 단체, 형사 고발 위기  
 [스위스] 스위스, 무종교인 34%...가톨릭·개신교보다 더 많아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교회, 러시아 침공 이후 교회 박해 최소 76건  
 [엘살바도르] 자칭 '가장 쿨한 독재자'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선 80% 득표 압승  
 [스페인] 사상 최악의 가뭄 덮친 스페인...물 사용 제한 조치



## 2024. 2 멕시코에서



- ▶ 파 송 윤천석, 황나미(멕시코)
- ▶ 후 원 천준상(이숙영)-캄보디아, 김병렬(이미진)-말레이시아  
 윤상혁(김나래)-인도네시아, 김상홍(조지현)-말레이시아  
 우진호(김지현)-베트남, 윤요한(서사랑)-인도네시아,  
 허수성(허인영)-태국
- ▶ 개척교회 부르심의교회(경연우목사), 경남교회(한덕숙전도사),  
 물댄동산교회(김일석목사), 행복교회(정용수목사)  
 보물상자, 어린이전도협회
- ▶ 기 관 해피가정사역연구소(서상복소장), 남부산동노회자립위원회  
 부산성시화운동본부(이단대책), 위컴스, 어린이전도협회(서  
 부산), 셀네트워크



담임목사 김성철  
 47506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서로70번길 76  
 T. 051-504-1128 F.051-504-1187



# 하나님 나라!

윤천석, 황나미 선교사(멕시코/파송)

## 굳어져 가는 마음!

2월 13일 화요일, 메리다 교사 세미나를 마치고 과달라하라로 돌아왔다. 오늘은 미국 비자문제로 첫 번째 대면 인터뷰다. 첫 번째 영사가 나에게 한 말은 “당신은 불법을 행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지요?”라는 말이었다. 쿠바를 거의 30회에 걸쳐 들어갔다. 이것은 미국의 관점에서는 불법이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지금 쿠바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수십만 명의 청년들이 쿠바를 떠나고 또 지역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중 하나는 쿠바의 목회자들이 자신의 사명을 기억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지역교회를 끝까지 책임지도록 돕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 106개의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 지금 들어가고 있으며 쿠바 정부가 허락하는 한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들어가 쿠바 지역교회들이 무너지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잘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포기하고 쿠바 지역교회들이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긴 면담 중 이 이야기가 영사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다. 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모든 대화를 받아 적고 있던 그가 나에게 말한다: “비자가 승인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호세 목사와 만나 3월 쿠바 입국 일정을 조율했다. 3월 3일부터 6일까지 메리다에서 있을 느헤미야 프로젝트의 통역을 마치고, 바로 8일부터 18일까지의 일정으로 쿠바에 들어갈 계획을 세웠다.

2월 13일 수요일, 쿠바 현지 리더들에게 모임 일정 등을 보내고 조율한다. 그러나 106명의 목회자와 그들이 알고 있는 목회자들 그리고 환자들이 자신들이 필요한 의약품을 나에게 요청한다. 매일매일 수십 통의 절박한 문자들을 접하며, 굳어져 가는 나를 발견한다. 안타까움에서 시작하였지만, 이제는 내가 이들 모두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음을 알기에 문자 속 절박한 그들의 요청에 나의 마음은 굳어져 있다. 마음을 읽으면 모든 것을 읽는데

## 기도에 따르자!

작년에 아버지가 소천하신 후 혼자 계셨던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들어가신 지 두 달이 되어간다. 나를 찾으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불편한 마음속에서 이곳 사역을 진행했다. 그러나 매일 새벽마다 나는 눈을 뜨고 기도한다. 나의 마음은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뵈어야 할 것 같은데, 기도하면 어머니의 회복을 위한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뺏어버리신다. 대신 모든 사역의 일정을 조금 앞당기기로 한다.

##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1월 30일 화요일 이른 아침, 캉쿤 공항으로 죽전우리교회 주일학교 디렉터들이 도착했다. 모두 나에게서는 친근한 얼굴들. 그러나 모두 긴 비행시간으로 지쳐 보인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첫 선교여행이라 그런지 긴장된 얼굴을 하고 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번 교사세미나는 기도하며 내가 결정했지만,

차로 20시간 떨어진 곳에서 내가 사는 지라 모든 준비는 이곳 현지 친구들이 준비했다. 17 교회 87명이 등록을 했다.

2월 1일 목요일 저녁, 교사세미나를 책임지는 김희남 전도사님이 나에게 묻는다: “선교사님, 내일 찬양팀이 있나요?” “없는데요.” “그러면 찬양을 어떻게 할까요?” 내가 대답했다: “우리가 준비하죠.” 난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지 못했다. 내일 당장 사용해야 하니, 지금 당장 한글 찬양 두 곡을 스페인어로 번역해 달라고 한다. 찬양은 단어를 번역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참 신기하다. 모두가 머리를 대고 나누니, 라틴식 찬양이 탄생했다. 번역된 찬양을 외우며 밤새 울동을 준비하는 이들이 참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다. 음원 위에 번역된 가사를 알아들을 수 없는 한국식 발음으로 입혔다. 세미나 기간 내내 이 곡들을 틀어 참석하는 모두가 기억하도록 하겠다고 결정했다.

2월 2일 금요일, 이상한 발음으로 울려 퍼지는 어린이 찬양곡을 필드로 세미나가 시작되었다. 메리다의 여러 지역에서 참석한 주일학교 선생님들, 참석자의 절반 가량은 신학교에서 우리와 함께 잠을 자며 보냈다. 토요일이 되자 직장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까지, 예상한 백 명을 훨씬 넘기는 사람들이 모였다. 한국어, 스페인어, 마야어, 각자 사용하는 언어는 다르지만, 모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세미나에 모인 이들이 살아가는 사회는 대부분 구전 사회다. 이들은 들은 것을 마치 복사기가 복사하듯 기억하고 말한다.

2월 3일 토요일 밤, 세미나를 마치자마자 첫 번째 실습 교회인 미겔 목사의 교회로 갔다. 이곳 교사들은 금요일부터 세미나를 참석하며, 배운 것들을 오늘 자신들의 교회에 적용하게 된다. 한국에서 온 이들이 하는 일은 그들이 처음 하는 일 옆에서 돕고, 조언을 해 주는 것이다. 80명 교인에 주일학교 3명인 미겔목사의 교회, 주일학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던 선생님들은 한국에서 온 주일학교 디렉터들과 금요일 저녁, 가가호호를 방문하고 아이들을 초청했다. 그리고 그날 2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번 세미나는 미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

2월 4일 주일 오전, 호르헤 목사 교회에서 실습하는 날이다.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모두 놀라고 또 놀랐다. 그 짧은 시간에 이들은 우리가 나누는 것을 모두 자신들의 것으로 흡수하고 우리가 준비한 것들보다 모임에 필요한 것들을 더 잘 준비해 두었다. 우리가 10개를 나누었다면, 이들은 그것으로 100개를 만들고 있었다. 함께 번역한 찬양은 메리다의 수십 교회로 전파되었다. 이번 세미나를 끝내며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이번 세미나는 그냥 손 안 대고 코 푼 것 같아.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어.”

## 기도제목:

1. 3월 4~5일 있을 느헤미야 프로젝트 통역을 은혜가운데 잘 할 수 있도록.
2. 3월 11일부터 18일까지 있을 쿠바 사역 가운데 안전과 건강과 은혜를 허락하시길.
3. 많은 상황속에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며 모든 결정들을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